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⑦

샷된 선정 일으키면 영원히 부처님 못만나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익숙한 길에선 오히려 길을 잃는 경
우가 많다"
옛사람의 말처럼 지혜가 분명하지 않
으면 흰 구름이 만 리나 떠나가듯이 가
는 길에 해로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작에서 털끝만큼이라도 편차가 난
다면 그 결과는 천지차이일 것이라는 의
미이다. 따라서 수행인이라면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경으로 일어
난 선정경계는 번거롭고 상대에서 벗어
난다. 따라서 수행인이라면 사경경계에
한 생각이라도 애착의 마음을 일으켜서
는 안 된다.

만일 한 생각이라도 애착의 마음을 일
으키면 인도에 성행하고 있는 구십 오종
사경 마구니 의도법하고 서로 일치하여
올바른 진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수행인이 생각 생각이 전도된
미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마군과 귀신들은 뛰어난 아라한의 신
통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유루법
의 다섯 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다. 그들
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귀신들은 수행자가 어떤 법
에 애착하는가를 알고 그가 좋아하는 것
을 따라서 세력을 더해 애착하는 마음을
더욱 성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샷된 삼매, 샷된 지혜, 샷
된 번째, 샷된 신통 등 갖가지 경계로 수
행자의 도업을 파괴하고 회방하여 마왕
권속이 되어 영원히 생사윤회에 침몰하
게 된다.

수행자가 이것이 마군의 업이라는 것
을 모르고 좋은 경계로 집착한다면 그
때부터 스스로 미혹하고 타인까지 미혹
하게 하여 샷된 선정과 샷된 지혜로 세
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설법
을 하게 된다.

어리석은 범부는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아말로 도를 얻은 자라고 믿고 복종하면

서 그를 의지해서 행동하게 된다. 음욕
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계정해' 라고
허망하게 말하기도 하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깨달음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
는다 하는 등 갖가지 요망한 말과 미혹
하는 언어를 진실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그것이 내적으로 자기 마음의
전도된 망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의 법을 자기 멋대로 사
용한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도인인 척 하지
만 실제 행동은 마군의 도를 행할 뿐이
다. 따라서 그는 금생의 수명이 다하고
죽을 땀 샷된 마군 귀신의 세계에 떨어
져 영원히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

털끝만큼이라도 집착하면 마군 경계 떨어져
사건에 오염되지 않아야 오묘한 지관과 일치

부처란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깨달은
다는 의미는 육진경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심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말
한다.

하지만 귀신의 법은 이 같은 이치를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등지고 육진
경계로 치우친다.

이처럼 한 쪽은 미혹하고 한 쪽은 깨
달은 것이 비유하면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샷된 선정을 일으키면 영
원히 부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인이 삼매 도적질 음행 등의 갖가
지 악한 법을 행하면 임종할 때 즉시 지
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때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힐통고
부처님 법을 회방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귀신의 법을 미혹해서 평생토록 악한 법
을 행했다는 것을 모르는 결과이다.
그는 인과라는 이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원히 악한 세계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은혜를 원수로 갚
은 경우라고 하는데 참으로 연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은 마왕
의 마음 씀씀이가 지나치게 흑독하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지관을 닦을 때 이와 같은
갖가지 사경과 거짓의 모습을 알았다면
즉시 물리치고 절실하게 탐애하지 않아
야만 한다.

이러한 경지를 만나면 반드시 모든
목적의 차별성은 그 모두가 나의 허망
한 분별의 모습이며, 모든 분별심은 망
상의 견해라는 것을 명료하게 깨달아야
만 한다.

샷된 지혜, 샷된 신통이 일어날 때는
즉시 그것은 허망한 망상 분별의 모습이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
님 법이 샷된 신통으로서 해탈로 여기지
않고 생사를 벗어나 깨달음이 길을 원만
하게 성취한 것으로서 극치를 삼고 있다
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감정고 집착에 얽매
이지 않는 자가 선정 삼매를 닦을 때엔
마음과 의식을 진실하게 하여 샷된 경계
를 받아들이거나 애착하지 않아야 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하며, 기
뻐하거나 노여워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
리고 주관 객관의 상대적 이분법에 대한
집착을 덜 다 있고 애증심도 동시에 버
려서 그 가운데서도 털끝만큼의 분별심
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태양이 밝은 빛을 비추듯이 올바른 지
혜로 한 생각 망상을 일으키지 않은 상
태에서 사경과 마군을 타파하여 모든 것

을 소멸해야만 한다.
지관을 수행하는 가운데 털끝만큼이
라도 집착하는 경계가 있다면 즉시 마군
의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스님들은 "털
끝만큼이라도 집착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삼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며, 한
찰나라도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영원
한 족쇄가 된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처음에는 옹맹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가 오랜 시간
이 지나자 선정 가운데서 환락의 마음이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어떤
선지식이 "선정 중에 무엇 때문에 웃는
냐"라고 묻자 그 수행자는 "선정 가운데
있을 때 금빛 털을 가진 사자가 찾아와
서 희롱해서 웃었다"라고 하였다.

선지식은 "이것이 환란을 일
으킨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버려
야만 한다. 선정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므로 절대로 집착하
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한 개의
화살을 주면서 거듭 그러한 경계가 찾아
오면 즉시 이 화살을 쏘라고 하였다.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그러한 경계를
다시 보고 즉시 화살을 쏘아 훌연히 자
기의 몸에서 통증을 느껴 깨어나 살펴보
았더니 마왕이 아닌 자기의 대뿔꿈을 찢
렀던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마왕은 오로
지 수행자를 혼란시키면서 도업을 파괴
시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다
는 점이다. 수행자가 공부할 할 땀 만드
는 시간 단없이 이러한 문제를 마치 자기
의 눈을 보호하듯 살피고 방지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1) 인연생기의 순차적 관찰(生滅流轉觀)

⑧ 애연취(愛緣取)
욕망을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집착이 일어납니
다. 만일 욕망이 없으면 집착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착은 욕망이 더욱 증가하여 견고해진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⑨ 취연유(取緣有)
욕망과 집착심이 하나로 합한 상태를 의지하여
세계와 개체의 사물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여 존
재하게 됩니다. 욕망과 집착심은 행 식 명색 육입
촉 등 다섯 가지를 더욱 생각하도록 윤회율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삼계와 그 안의 모든 개체 사물들
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⑩ 유연생(有緣生)
행으로부터 수까지의 다섯 종류는 욕망과 집착
심을 배양하고 생각하는 도움을 받아 세계와 개체
사물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를 의지하여 각
자 개체의 생존이 일어나게 됩니다.

⑪ 생연노사(生緣老死)
이미 일어난 각 개체의 생존을 의지해서 다시
변천과 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좀 더 부연
해서 설명하면 식 명색 육입 촉 수가 목전에 일어
난 상태를 '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어나면
반드시 변천하고 변천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천과 소멸은 반드시 갖가지 근심과
고뇌를 수반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생을 의지해
서 '노사우비고뇌(老死憂悲苦惱)'가 일어난다"라
고 하였습니.

이를 다시 요약하면 행으로부터 식에 이르고,
유로부터 생에 이르러 그 결과는 오로지 '노사우
비고뇌'일 뿐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모든 유
정들은 이를 굳게 아집견으로 집착하고 버리지 않
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무명'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십이인연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
우비고뇌'에서 끝납니다. 중생 윤회의 인과관계
인 흑업고(感業苦)의 실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가운
데 무명 에 취는 '혹'에 해당되고, 행과 유는 '업'
에 해당되며, 식 명색 육입 촉 수와 생·노사는
'고'에 해당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무명의 '혹'을 따라서 신구의
'업'을 짓고, '업'을 따라서 삼계생사로 괴로운
'고'의 과보를 받는데, 이 같은 생사의 인과관계가
십이인연기에 있어서 그 모습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
납니다.

앞에서 말한 십이인연의 순차적 관찰(順觀)은
사제(四諦) 가운데 고집제(苦集諦), 즉 세간인과(世
間因果)에 해당되고, 다음에 서술하는 소급관찰
(逆觀)은 멸도제(滅道諦), 즉 출세간인과(出世間
因果律)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705호 | 포교원 안내, 포교당(급)안내, 사찰 안내,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대사찰 급 안내, 암자 안내, 사찰(터) 안내